

취약지역 전법... '교세 전국화'

조계종, 인천·목포 전법거점 지정 '의의'

조계종 전법의 해 조직위원회(위원장 원주)는 9월22일 전법도량지정 심사위원회를 열어 인천과 목포 두곳을 포교거점 지역으로 지정했다. 또 시범사찰은 가능별로 많은 곳을 지정기 위해 1개월 동안 신청 및 추천을 받아 재심사 후 다수의 사찰을 지정기로 했다. 조직위원회는 당초 거점사찰 2곳, 시범사찰 5곳을 지정해 거점사찰에는 3천만원, 시범사찰에는 5백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었다.

조직위원회가 거점사찰 대신 거점지역으로 결정할 배경은 특정사찰을 거점사찰로 지정할 경우 자칫 같은 지역내에서 사찰간의 갈등을 낳을 우려가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또 거점지역으로 지정된 두 지역이 전통적으로 개신교세가 강한 지역으로 지역사회에 미치는 조계종의 영향력이 미미한 곳으로 평가돼 취약지역의 포교열기를 확산시켜야 한다는 정책적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인천지역의 경우, 지역인구 1백만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54만여명이 개신교 신자로, 불교인구의 5배를 상회한다. 특히 1백66개 사찰 가운데 조계종 사찰은 37개(공찰은 능인사 1곳)로 조계종세도 대단히 약한 곳이다. 이에따라 조직위는 해당 지역 조계종 사업이 연합회를 재구성, 지역연합의 교육기관 개설을 추진한다는 방

농어촌 포교의 새장 기대 스님 법사단 구성 순회법회 지역연합 교육기관 개설 추진

그러나 해당지역의 사업연합회를 구성 또는 재편성하고 포교전략에 따라 역한분담을 위해서는 사실상 올해안에 불교대학 설립이나 본격적인 포교정책 추진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목포의 경우 대둔사 송광사 백양사 등 3개 본사의 유기적인 협조가 전제되어야 한다.

실제 조직위원회 실무위원들은 거점사찰 2곳, 시범사찰 5곳을 지정할 염두를 두고, 지정 직후 현관식과 함께 종단내 중진 이상의 스님들로 법사단을 구성, 대대적인 순회법회를 개최해 전법분위기를

고취시킨다는 계획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조직위원회가 '거점지역'으로 선회함에 따라 전법도량 추진계획과 일정을 전면 재조정해야할 처지에 놓여 있어 실무위원들은 당혹해하고 있다. 조계종은 올해를 전법의 해로 선포하고 전법도량 지정, 포교분위기 확산을 위해 순회법회 개최 등을 주요정책사업으로 추진해왔다.

한편 포교원은 "울산불교문화교육원의 경우, 해당 사업연합회가 공동으로 문화원을 설립하고 운영제로 회장을 맡아 운영하고 있는 모범사례가 있다"며 "거점지역 선정으로 오히려 지역불교의 단합과 활성화를 이루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은 기자



○전국 초·중·고 불자교사모임 결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사진은 9월 19일 열린 서울·경인 교사불자회 창립법회.

전국 교사모임 교두보 될듯

서울·경인 교사불자회 19일 창립

조계종단 차원의 서울·경인지역 교사불자회가 창립됐다. 조계종 포교부장 원혜스님을 비롯 서울·경인지역 교사 30여명은 19일 서울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서울·경인지역 교사불자회 창립법회를 봉행하고 △각급학교의 불교학생회 활동지원 △학생들을 위한 포교자료 개발 및 간행사업을 벌여나가기로 하는 한편 회장에 임완숙교사(이화여고)를 선출했다. <4면에 인터뷰>

서울·경인지역 교사불자회는 매월 셋째 주 금요일마다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정기법회를 봉행기로 하고, 중점사업으로 청소년을 위한 '폭지' 발간과 교사 대상의 불교강좌를 개설기로 했다.

포교원은 내년 1월 예정된 서울·경인지역 교사불자회 수련회에 각지역 모인 추진위 대표들도 참석해 해 내년 상반기

중 (가칭)전국교사불자연합회 결성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김천지역에 지사교사불자회(회장 조봉연) 광주·전남교사불자회(회장 김진택) 부산 불교교학생회 지도교사모임 등이 활동하고 있어 전국모임 결성은 순조로울 것으로 보인다.

포교원은 또 내년 예산에 전국교사불자연합회 결성과 이후 활동지원을 위해 내년 예산에 지원금을 상정할 계획이다. 또 교사불자 가운데 일정 자격을 갖추면 기존의 포교사와 별도로 '청소년 포교사'로 임용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등 교사불자 지원책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서울·경인지역 교사불자회 창립과 전국모임 결성음직임이 가시화됨에 따라 사찰 및 청소년단체의 지도자 부족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혁종단 성과 대중체감 '미흡'

실천승가회, '개혁 3년 평가와...' 세미나



○심익섭교수 ○김용철교수 ○유승무교수 ○김기언교수

11월로 출범 3주년을 맞는 조계종 개혁종단의 점수는 얼마일까. 또 종단의 인사·재정관리 현황과 과제는 무엇일까. 이같이 그동안 다루기 미묘했던 사안에 대해 실천불교전국승가회(의장 청화·지선)가 개최한 '97 추계정진도량에서 도출해냈다.'

9월30일부터 10월1일 양산 통도사에서 열린 추계정진도량은 '종단개혁 3년'에 대한 평가와 중무행정 발전전략이

사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한 김용철교수(중앙승가대)는 "현 종단의 인사관리는 계율과 관습에 근거한 전통적 승가의 인사제도에 의해 운영됨으로써 소극적으로 수립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교수는 현 종단인사정책의 문제점으로 △종단발전 목표와 부합하는 인사정책 미흡 △능력 중심주의 인사정책 결여 △단위사찰의 소임자 부족 △종단과 교구 사이의 재가종무원 인사 교류 미흡 등을 제시했다. 이어 김교수는 "종무기

열린행정 민주적 리더십 필요 종책심의기구 설치도 제안

주제, 이날 토론에서는 종단개혁을 통해 출범한 현 조계종 총무원이 '개혁의 5대지표의 제도화'를 과제로 출발했으나 종책의 수행과정에서 충분히 소화해내지 못함으로써 구조적 측면과 성취도 측면에서 크게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종단개혁 3년'에 대한 정책평가'를 주제로 발제한 나선 유승무교수(중앙승가대)는 이같은 평가와 함께 "현 총무원의 정책은 현안중심의 단기적 과제결합에 집중함으로써 종단개혁과제로 수렴되지 못한채 종단개혁과 단정성을 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교수는 "현 총무원은 종단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많은 제도개혁적 차원의 성과에도 사부대중들이 실제로 느낄 수 있는 개혁성과는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개혁정책의 미흡함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종책심의기구 설치 △종책집행 평가제도 마련 △종책집행에 대한 객관적 평가 등을 제시했다.

종무행정 발전전략과 관련, '종단 인

는 발전을 위해 중앙인사기관 설치, 종무원 양성전문 교육기관 설치,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등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밖에 '종단 재무관리 시스템의 평가 및 전망'에서 김기언교수(경기대)는 "총무원 재무기관의 예산구조는 대부분이 정부예산의 체계를 그대로 수용, 지속적으로 개혁을 해온 결과 제도적 측면에서 상당히 체계적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종단이 비영리 조직이라는 점에서 모든 프로그램과 지출을 매년 재평가, 우선 순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영기준예산(Zero-base Budget)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익섭교수(동국대)는 '종단리더십 평가와 종무행정 발전의 기본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현 종단의 경우 종교의 속성상 그동안 '카리스마적 리더십'이 유효했다"고 평가하고 "민주적 리더십이 보다 적극적으로 열린정책을 통한 정책추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정은 기자

산문(山門)안은 성역이다. 산문안에 들어서면 불법승 삼보의 향기를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산문은 산에 들고 나는 문이 아니라 스님들의 수행도량인 절문을 상징한다.

10월15일 산문은 과연 달할 것인가. 단종소식이 점점 다가오면서 국민의 시선이 국립공원 산문으로 쏠리고 있다.

원관리공단은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 하물며 문화재관리로 인상을 계기로 행정지침을 여겨가며 분리징수에 나서다니 남의 밥그릇을 넘보는 소행 아닌가. 공단이 진정으로 국민의 '주머니'를 걱정한다면 조계종 요구대로 입장료를 폐지하고 공원관리는 다른 나라처럼 국비로 하던

바르면 11월부터 서울대공원등 놀이동산의 입장료가 어른 3천5백원에 5천원으로 인상된다고 한다. 이에 비하면 사찰문화재 관람료 인상은 인상도 아니다. 거기다 공원입장료가 폐지되면 국민은

목어

이같은 대승적 뜻을 이해 못하는

山門

사람들은 사찰이 관람료를 받아 때문이라도 버는 줄 안다. 이번 국립공원 입장료와 관람료분리징수 문제만해도 그렇다. 일부에선 '밥그릇 싸움'이라는 골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으나 사찰측 입장은 그렇지 않다.

국립공원의 사찰에는 선방도 있고 강원도 있다. 그곳 스님들이 주변의 번거로움과 소란스러움을 감내하면서 산문을 열어 놓는 것은 사찰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다. 관람료 수입은 사람들에게 시달리는 정보보존관리비로 턱없이 부족하다. 사찰에 표시소에서 함께 입장료를 받고있는 공

부담없이 산과 절을 두루 볼 수 있다.

옛부터 절은 산을 보호관리했다. 명산과 명찰은 그래서 하나다. 국립공원안에는 사찰소유의 땅이 있다. 내집·내땅·성보를 '우리의 것'으로 내놓는 산문의 주인에게 상의도 없이 분리징수 강요라니...

조계종은 산문폐쇄의 명분을 뚜렷이 해야 한다. 시위용이 아님을 보여줘야 국민의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다.

10월15일 산문폐쇄의 열쇠는 정부에게 달려있다. 불교계의 요구에 정부가 어떻게 응하느냐에 따라 산문은 열리고 닫힐테니까.

현대불교 창간 3주년 철야기도 3천배 대법회

현대불교신문은 창간3주년을 맞아 불교계와 애독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뜻으로 "참회하는 삶 위한 3000배 바람(願) 정진(力)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참회기도량 삼각산 도선사(주지 동광)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 법회는 현대불교신문이 올해 연중으로 벌이고 있는 '참회하는 삶을 살자' 캠페인의 실천행사이기도 합니다. 3000배기도는 불자라면 간절한 발원의 성취를 위해 평생 한번쯤은 수행하고 싶어하는 신행의 대표적인 상징이기도 합니다. 평소 3000배 기도원력이 있었지만 염두를 내지 못했거나 기회가 적절치 않았던 분 등 많은 분들이 동참해 3000배 인연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행사 안내
△일 제: 1997년 11월 1일(토) 오후4시

△회 향: 11월2일(일) 오전5시(새벽예불후)
△장 소: 참회도량 삼각산 도선사(대웅전 석불전 참회당 등)
△참석인원: 영구독자자를 비롯 사부대중 1천명(선착순 접수)
△동참비: 5천원
△일 정
입제식
5백배씩 하고 10분 휴식
지내공양 간식공양
새벽예불
회향식
△준비물: 수건, 작은 개인 물통

* 영구 구독자제는 우선 참가권을 드립니다.
* 가족이나 단체단위로 참가하시면 더욱 뜻깊을 것입니다.
* 건강이 따라주지 않는 분들은 앉아서 동참하는 방편도 공덕이 된다고 하므로 선업소님은 몸소 실천해 보이셨습니. 동참원력이 귀하다 하셨습니다.

社團法人 大韓佛教 圓融宗 金剛戒壇 國際 菩薩戒 受戒 山林 大法會

歸依三寶하옵고

各界尊師와 四部大衆 十方諸賢諸位께 佛菩薩님의 慈悲光明이 늘 함께 하시기를 祈願합니다.

本宗에서는 傳法度生의 一環策으로 迷惑의 暗夜에서 허덕이는 苦海衆生을 濟度하고 佛教重興을 爲하여 金剛戒壇 國際菩薩戒 및 靈山齋法要式을 다음과 같이 奉行코져하오니 公私多忙하시더라도 隨喜同參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日 時 : 佛紀 2541 (1997)年 10月 7日 (陰 9月 6日) 午前 11時
- 場 所 : 서울 송파구 신천동 7-13 재향군인 회관 2층 3층 강당
- 電 話 : (法會場) 02-418-1636 (總務院) 02-857-5094

五 和 尚

傳戒大和尚 靈山 一空
 禪磨阿사梨 如虛 慧日 (中華民國)
 禪磨阿사梨 寶印 輔宇
 教授阿사梨 大森 慈祥 (日本國)
 教授阿사梨 惟念 法信

證 師

圓山, 圓海, 圓應, 圓空, 法雲, 載嶺, 圓覺.
 左 引 禮 師 : 圓光
 右 引 禮 師 : 圓鏡

- 奉行 委員長 : 曹 性 觀
 委 員 : 正觀 舞松 普匡 體仁 體依, 지관, 井光, 鶴林
- 執行 委員長 : 李 平 信
 委 員 : 仁觀, 性印, 性觀, 體乘, 體道, 體法, 眞聖
- 推進 委員長 : 朴 大 月
 委 員 : 善德, 海空, 普廣, 체신, 체예, 三味華
- 國際 菩薩戒 受戒山林 金剛戒壇長 : 崔 法 輪
- ◎ 後 援 : 韓國佛教宗團協議會, 韓日佛教 文化交流協議會

社團法人 大韓佛教 圓融宗 總務院長 宋 寶 印 合掌